

2021년 11월 07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목상기도 하겠습니다.

◎ 목상기도(인도자는 시편 44편 26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44편 26절]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288(통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베드로전서 5장 8~14절(신약p.382)

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11.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2.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3.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14.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 말씀선포 / 영적싸움에서 승리하라

칼빈은 지상의 교회를 가리켜 “전투적 교회”라 했습니다. 이것은 지상의 교회, 즉 교회로 부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영적 대적들과 더불어 싸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굳건히 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은 육체의 싸움과 달리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가 말하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 본문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 했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마귀는 이시간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근신하다.” 는 말은 “뵈사테”로서 원형은 “네츠포”로 이 뜻은 “정신을 차리다, 신중하다, 근신하다.” 라는 뜻으로 결국 무엇인가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스스로의 행동을 자제하는 모습을 뜻하는 말로 감정, 욕망, 욕심, 염려 등에 대해 자제하는 것이고, “깨어라” 라는 말은 “그레고레사테”로 그 원형은 “그레고레오”인데 정신을 차리고 지켜보는 것을 뜻하는 말로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고 눈을 뜨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근신하라.” 는 것은 심적이요 영적인부분에서, “깨어라.” 는 것은 육체적인 경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서는 보초병이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잠입니다. 잠들거나 졸고 있을 때 적군이 침입하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본문에서 “대적”이라는 말은 “안티디코스”로서 이 뜻은 법정에서 “소송의 상대자, 원수”를 나타내는 말인데, 참으로 마귀는 성도를 적대하는 자며 그 다른 이름은 사탄으로 그 뜻은 “대적자”입니다. 마귀로 번역되는 헬라어 “디아볼로스”는 그 뜻이 “고소자, 중상자”입니다. 이러한 마귀는 그 잔인성 때문에 사자라 불리 우기도 합니다. 마귀는 세 가지 모양으로 성도를 시험하는 데, 첫째, 간교한 뱀으로 우리의 감각을 속여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둘째, 빛의 천사로 우리를 속여 신령한 진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하고, 셋째, 우는 사자로 우리를 물질이나, 사람이나, 혹은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려 힘으로 멸망의 길로 행하게 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존재 자체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면 방심하게 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적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할 때 함께 언급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고 명령하셨고,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고 권고 했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살전5:17)는 말씀에 순종해 항상 깨어 있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2.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 본문 9~10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반드시 이긴다는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현실에서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현실의 고난에 절망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고난도 인내하며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성도가 영적 싸움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으나,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성도들의 궁극적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무기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 승리를 이미 쟁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미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3장 14절에서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고 말씀하며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승리케 하심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담대히 감당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서십시오.

-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그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난을 당하며 영적전쟁을 행하고 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더 이상 사탄이 어떤 치명적 해도 입힐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며 참소하는 자들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으로 시험을 당하며 고난을 겪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신감주로 무장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사탄과 싸워 승리를 맛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5:16~18)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며 그 열매입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터를 견고히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고난 속에서도 승리의 싸움을 치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70(통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폐 회 / 주기도문